

국토정책 *Brief*

제 245 호
2009. 9. 21

일본 광역지방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

김진범(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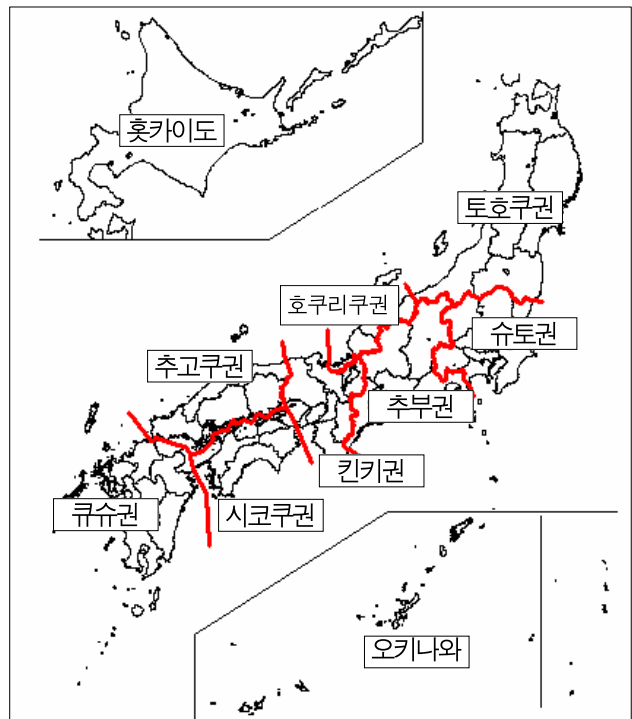
- 일본 국토교통성은 2009년 8월 4일 전국 8개 광역권의 개발계획인 ‘광역지방계획(廣域地方計劃)’을 발표함
- 이번 광역지방계획은 2008년 7월 발표된 국토계획의 지침인 ‘국토형성계획(전국 계획)’에 기초하여 지역이 주도하여 수립한 최초의 계획임
- 개별법에 의거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홋카이도와 오키나와를 제외하고 전국을 8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로 향후 10년간 추진해야 할 프로젝트 등을 결정한 것임
- 도쿄를 포함하는 슈토권 계획은 ‘세계의 경제·사회를 견인하는 품격 있는 권역형성’을 목표로 외국어로 진료 받을 수 있는 의료시설 정비 등 국제비즈니스 거점으로서의 기능 강화 등 내용을 담고 있음
- 우리나라와 근접한 큐슈권에서는 ‘동아시아와 함께 발전하고, 활력과 매력이 넘치는 국제 프런티어 큐슈’를 목표로 동아시아의 국가·지역과 무역·투자, 기술·인재 등의 상호협력을 통한 경제교류 강화 등의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임
- 우리나라도 저출산·고령화·국제화·정보화 등의 사회·경제적인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복수의 광역자치단체가 협력하여 권역의 실정에 맞는 미래상을 수립하고 공유하는 계획제도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

1. 지역 주도의 광역지방계획 수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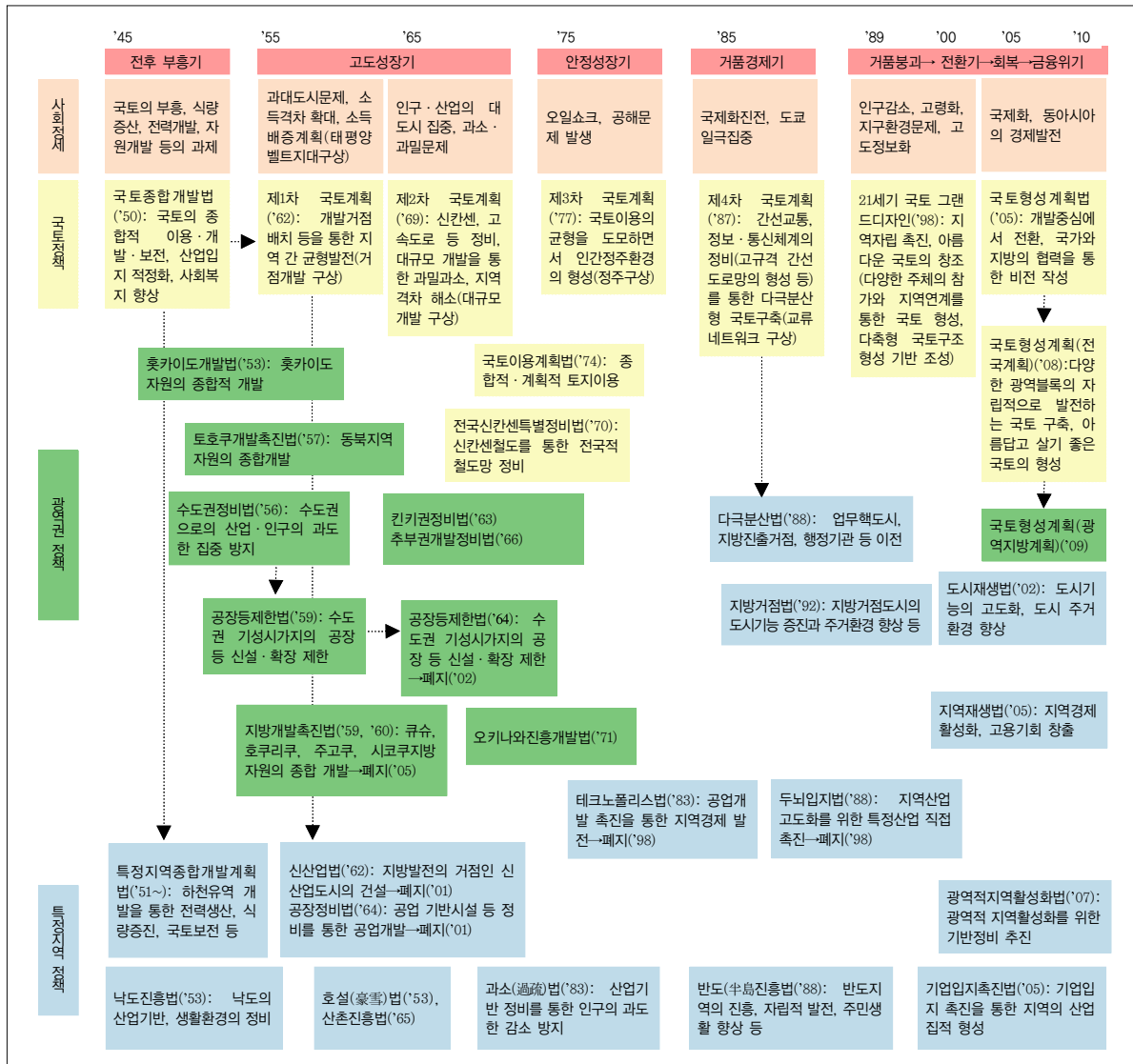
- 2009년 8월 4일 일본 국토교통성은 2008년 7월 4일 각의에서 결정된 ‘국토형성계획(전국계획)’을 기초로 수립된 8개 권역의 ‘광역지방계획’을 결정함
- 과거 중앙정부 주도의 개발지향적 국토계획(〈그림 2〉 참조)을 반성하면서 이번 광역지방계획은 향후 10년간 권역의 자립적인 발전전략을 작성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경제단체 등으로 구성된 광역지방계획협의회 주도로 검토·협의하여 수립됨
- 광역지방계획은 ‘광역권별로 특색 있는 전략의 수립’, ‘권역 간 교류·연계를 통한 상승효과 발휘’, ‘권역 간 상호 보완을 통한 공생’, ‘문화·전통과 개성 있는 경관 등 아름다운 국토의 재구축’ 등을 기초로 작성됨
- 이를 위해 권역 외부에 대해서는 ‘동아시아 등과의 교류·연계’, ‘태평양뿐만 아니라 동해(일본해)와 동중국해의 활용’, 내부에 있어서는 ‘성장엔진인 도시·산업의 강화’, ‘각 지역의 연계 및 상호 보완’, ‘지역의 모든 힘을 결집하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생활권의 형성’을 통해 자립적인 발전을 위한 향후 10년간의 발전전략을 제시함

- 우리나라는 공간계획의 ‘최상위 계획’인 국토종합계획을 수립·운영하고 있음
- 하지만, 국토종합계획에 근거하여 복수의 광역자치단체가 상호 협력하여 수립하는 계획제도는 아직껏 마련되지 않고 있음
- 이하에서는 일본에서도 최초로 수립하는 광역지방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간략히 정리하고자 함

【그림 1】 광역지방계획 대상권역



[그림 2] 일본의 국토정책 변천과정



자료: 国土交通省国土計画局, 2009.1.28. 広域ブロックの現状と課題, 第1回広域ブロック政策研究会配付資料.

2. 권역별 규모와 주요 프로젝트

● 토호쿠권(東北圏)

■ 권역의 규모

- 7개 현(縣), 면적 7.5만km², 인구 1,210만 인, 지역총생산액 43조 엔

■ 주요 프로젝트

- 동북지역의 잠재력을 활용한 저탄소·순환형사회 형성
 - 희소금속 확보를 위해 사용 후 소형전기·전자기기의 광역 회수시스템 구축

- 기간산업인 농·수산업의 강화
 - 지역의 농업, 식품제조업, 관광업 등의 연계를 통한 고품질의 농산물과 고부가가치 가공식품의 개발
 - 쌀을 원료로 하는 신상품 개발을 통해 쌀 소비 확대
 -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온에서도 생산 가능한 벼의 육성
- 환동해(일본해) 광역교류권 형성 프로젝트
 - 중국·한국·러시아 등 환동해(일본해) 지역의 대학과 연계를 통한 학생·교수의 교류 등 지식 네트워크 구축

● 호쿠리쿠권(北陸圏)

■ 권역의 규모

- 3개 현, 면적 1.1만km², 인구 310만 인, 지역총생산액 12조 엔

■ 주요 프로젝트

- 동아시아로 뻗어가는 일본해 중추거점 형성
 - 의약산업 집적을 활용한 라이프 사이언스 연구개발 거점 형성
 - 의약품, 진료·검사기기의 기술을 활용한 면역의료 시스템 공동연구
 - 동·서의학 융합의료 모델과 뇌자계(腦磁計) 등 첨단기술의 국제표준 마련
 - 전통 섬유산업에서 신소재 분야인 차량, 항공우주, 가전제품 등으로의 전환
- 풍요로운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접형 도시권 형성
 - 경전철, 노면전차 등의 시내 순환노선, 도심지역 셔틀버스 정비
 - 맞벌이 부부를 지원하기 위해 육아환경 정비

● 슈토권(首都圏)

■ 권역의 규모

- 1개 도(都) 7개 현, 면적 3.6만km², 인구 4,240만 인, 지역총생산액 194조 엔

■ 주요 프로젝트

- 국제비즈니스 거점기능 강화
 - 도쿄역 주변지역에 고기능 오피스의 공급 촉진, 정보통신망의 재구축

- 환승 편리성 향상과 정체 완화
- 외국어 가능 의료시설, 국제학교 등의 정비
- 무역·투자상담기능의 강화를 위해 국제컨벤션 유치
- 사찰, 후지산 등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애프터 컨벤션(컨벤션 개최 후의 관광) 추진
- 전망대인 ‘도쿄스카이트리(약 610m)’를 중심으로 문화·생활·관광거점 정비
- 산업 이노베이션 창출
 - 양자(量子)빔 시설 간 연계를 통한 민간기업 이용의 촉진
 - 나노기술 등을 활용한 고부가가치산업 창출, 정밀기기 등 기반기술을 활용한 고성능 기기 생산기업 창출, 시제품 개발을 담당하는 기술디자인 거점 형성
 - 국내 최대 IT관련 산업의 집적을 활용한 자립·지속적 네트워크의 형성을 통해 정보 벤처기업의 육성
- web(망) 구조 구축
 - 도시 간, 도시와 농촌 간 연계 강화를 위해 환상형 교통체계와 정보통신망 정비
 - 업무핵도시와 지방거점도시 등에 업무·상업·생활기능의 집적을 촉진하여 자립적이고 개성적이며 매력적인 도시로 육성
 - 도심으로의 상업·공공·거주기능의 입지 촉진 및 보행자를 배려한 공간 구성 등을 통해 중심시가지 활성화
- 저출산·고령화에 대응한 모든 사람에게 편리한 지역만들기
 - 자녀를 둔 세대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, 주택구입 지원
 -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시 복지시설의 병설·유치
 - 보행공간 등에 대한 유니버설 디자인 촉진
 - 뉴타운 재생 시 자녀를 둔 세대와 고령자 세대의 우선 입주, 어린이집과 복지시설의 병설·유치를 통해 세대 구성의 다양화 촉진

● 추부권(中部圏)

■ 권역의 규모

- 5개 현, 면적 4.1만km², 인구 1,720만 인, 지역총생산액 77조 엔

■ 주요 프로젝트

- 모노즈쿠리(ものづくり, 장인기술 기반의 제조활동)산업의 경쟁력 강화

- 고도의 숙련된 기능을 필요로 하는 기술·기능의 계승과 후계자의 육성
- 차세대 산업의 이노베이션 촉진
 - 싱크로트론(Synchrotron) 광(光)연구를 위한 ‘지식의 거점’ 정비
 - 항공기와 항공우주산업 관련 연구개발 거점시설의 정비·유치
- 다문화공생선진권 형성
 - 정주외국인의 기능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과 연수제도의 도입
 - 외국인 자녀가 학교에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취학 전 교육기능 강화
 - 행정과 외국인을 연결하는 다문화 소셜 워커 등의 인재 육성

● 추고쿠권(中国圏)

■ 권역의 규모

- 5개 현, 면적 3.2만km², 인구 770만 인, 지역총생산액 30조 엔

■ 주요 프로젝트

- 모노즈쿠리산업의 재구축·고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
 - 단일창구를 통한 기업 유치, 사무소 개설 지원을 통해 외국기업의 유치 활동 강화
- 북동아시아 관문 역할 강화
 - 국제적인 무역박람회 참가 지원, 북동아시아 지역의 문화·예술단체 초청 및 강좌·연수의 개최를 통해 민간의 친선·문화교류 촉진
 - ‘북동아시아지역 대학교수 협의회’ 등을 중심으로 대학·연구기관과의 학술연구 교류 촉진
- 세토(瀬戸)내해·동해(일본해) 연안지역의 국제교류기능 강화
 - 대형선박에 대응한 산업항만시설의 재정비

● 킨키권(近畿圏)

■ 권역의 규모

- 2개 부(府) 4개 현, 면적 2.7만km², 인구 2,090만 인, 지역총생산액 82조 엔

■ 주요 프로젝트

- 문화수도권의 형성

- 문화·지역진흥 관련 분야의 장인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대학원 설치
- 국보 등의 보존기술을 계승하기 위해 기능 학습시스템 구축
- 차세대산업을 창조하는 ‘지혜의 거점’ 형성
 - 세계 최고의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의 형성
 - 음식관련 지식 축적과 세계적인 인재육성을 위해 일본 최초의 ‘식(食)대학원’ 설치
- 칸사이 매력 회랑의 형성
 - ‘산인(山陰)해안 지오파크(geopark: 과학적으로 귀중하고 아름다운 지질 유산)’를 활용한 ‘지오 투어리즘’ 강화
- CO₂ 저감과 자원순환사회 형성
 - 전기자동차·연료전지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충전시설·수소·천연가스·바이오연료의 공급시설 등을 광역적으로 정비

● 시코쿠권(四国圏)

■ 권역의 규모

- 4개 현, 면적 1.9만km², 인구 410만 인, 지역총생산액 14조 엔

■ 주요 프로젝트

- 사람과 문화를 육성하는 산학관 연계 강화
 - 시코쿠권 전체의 지역정책을 연구·입안하는 종합연구소의 설치
 - 역사적인 인물의 정보를 수집하고 발신하는 ‘인물관광’ 활성화
- 광(光)기술·건강지원산업클러스터의 형성
 - LED, 희소당(稀少糖) 등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클러스터 형성
- 역사·문화·풍토를 활용한 개성 있는 지역의 형성
 - 세토내해 크루즈 관광 유치를 위해 대규모 야외박물관의 정비

● 큐슈권(九州圏)

■ 권역의 규모

- 7개 현, 면적 4.0만km², 인구 1,335만 인, 지역총생산액 44조 엔

■ 주요 프로젝트

- 동아시아와 일본의 관계를 견인하는 매력 있는 국제교류 프런티어의 형성
 - ‘환황해 경제·기술교류회의’ 등을 활용한 무역·투자, 기술·인재 등의 상호 협력을 통한 경제교류의 추진
- 큐슈권의 지속적인 성장을 실현하는 성장형·견인형 산업군 형성
 - 반도체산업과 자동차산업의 융합을 위한 자동차 연구개발거점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‘카(car) 아일랜드’ 형성
 - 반도체 평가·해석기술, 태양광 관련 산업집적 등 세계적인 기술과 조선산업 등 차세대 성장기대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‘실리콘(silicon) 아일랜드’의 형성
- 동아시아에 대한 접근성을 활용한 ‘푸드(food)·관광 아일랜드’의 형성
 -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해외시장 동향조사, 수요 조사 등을 실시하고, 소비자 수요에 맞는 농림수산물·식품, 목재제품 등의 개발을 통해 ‘푸드 아일랜드’의 형성
 - 신칸센과 한국의 고속철도 등을 활용한 한국과의 관광연계 강화를 통해 ‘관광 아일랜드’의 형성

3. 시사점

- 일본의 광역지방계획은 지역의 주체성을 중시하고, 지방정부와 주민의 의견을 폭 넓게 반영하였다는 특색이 있음
- 즉, 미시적으로는 ‘육아환경 정비’, ‘전통 장인기술의 계승’, 거시적으로는 ‘초국경적 사람·상품·자본의 연계·교류 강화’ 등 권역별 특성에 부합하면서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발굴되었음
- 우리나라도 저출산·고령화·국제화·정보화 등의 사회·경제적인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복수의 광역자치단체가 협력하여 권역의 실정에 맞는 미래상을 수립·공유하는 계획제도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

● 국토연구원 녹색국토·도시연구본부 김진범 책임연구원 (jinbkim@krihs.re.kr, 031-380-0144)